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의 恩寵論 고찰
(告白錄, 基督教 強要를 중심으로)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 전공

권 문 형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의 恩寵論 고찰
(告白錄, 基督教 強要를 중심으로)

指導 김 동 건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년 12월 일

영남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 전공

권 문 형

權文炯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主 審 _____

副 審 _____

副 審 _____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년 12월

謝 辭

본 論文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하여 주신 김동건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제출자 권 문 형

목 차

I 서론

- A.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의 교회사에서의 중요성
- B. 은총론의 이해와 중요성
- C. 은총론 연구의 목적과 범위

II.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고백록을 중심으로)

- A. 악의 원인
 - 1. 아우구스티누스가 본 마니교의 악의 개념
 - 2. 아우구스티누스의 악의 실체와 악의 원인
- B. 선물로서의 은총
 - 1. 플라톤 주의자들에서 배우지 못한 것
 - 2. 인간의 행위의 한계
 - 3. 인간의 감각과 기억의 한계(비참한 인간의 실존)
- C. 그리스도만이 은총의 수단이 되는 증거들
 - 1.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 2. 희생제물 대속적 공로

III 칼빈의 은총론

- A. 칼빈의 이신칭의(以信稱義)에 나타는 은총사상
 - 1. 믿음에 대한 정의
 - 2. 칭의의 정의

3. 철저하게 믿음만을 강조하는 이신칭의 속에서 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

4. 이신칭의를 공격하는 주장에 대한 변론

B. 악의 실체에 대하여

1. 악의 실체와 칼빈의 사탄의 의미

2. 악의 원인으로서의 죄

3. 예정과 유기의 신비

C. 선물로서의 은총

1. 인간의 행위의 한계

2. 인간의 인식의 한계

D. 그리스도만이 은총의 수단이 되는 증거들

1.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2. 희생제물 대속적 공로

IV. 두 은총론의 비교

A. 계승 혹은 수용의 측면

B. 첨가 및 강화의 측면

1. 영원 전부터의 택정

2. 은총론의 하나님의 주권의 강조

V. 결론46

※ 참고문헌

I. 서론

A.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의 교회사에서의 중요성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두드러진 인물이 두 사람이 있다. 이들은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이다. 기독교인의 신앙과 신학사상에 있어서 이들의 영향은 여러 세기 동안 계속되고 있다. 천부적인 종교적 재질을 지녔던 아우구스티누스는 4세기 이후 천년 동안의 기독교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어떤 학자는 서구의 모든 철학이 플라톤의 각주이듯이 서구의 모든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각주이다 고 평가하기도 하였다.¹⁾ 틸리히가 아우구스티누스를 말하여 “그는 자기 이후 천년 동안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²⁾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오늘날까지는 기독교 교회사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은 루터와 함께 칼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천부적인 종교적 재질을 지니고 있었다. 천부적인 재질을 지녔던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 이 두 사람은 교회 역사에서 피라미드처럼 우뚝 솟아 있다.

월필드 박사에 의하면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은 현대의 종교적 신학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계있다고 하였는데³⁾ 어찌면 그 태두리 안에 아직

1) 김영도, 『어거스틴, 누구의 편인가?』, 영신논단 창간호 2000. . . p. 103

2) P. Tillich,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8), p. 103

도 현대의 신학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또 이들에 대한 연구는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지나가 버린 휴지통에 버려진 옛날의 지식이 아니라고 본다. 또 그렇게 접근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신학과 사상은 아직도 현대의 신학사상의 태마이며 현대교회에 안에서도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참된 종교적인 또한 신학적인 부흥은 어거스틴주의와 칼빈주의의 부흥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이들이 있고⁴⁾ 본인 또한 공감하는 바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개혁을 말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는 있지만 그 지식의 깊이가 없이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지나며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날에도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에 대한 연구는 그 두 인물의 중요성으로 보아서 그 가치가 지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특별히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는 이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이 된다고 하겠다. 고통 속에서 세속화된 사회로부터 생겨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긴장 상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았던 4세기 지중해 세계의 긴장상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⁵⁾ 그러한 상태를 아우구스티누스는 해석하고 로마적인 삶을 특징지으며 기독교 공동체를 혼란에 빠트리게 하는 영적인 피폐와 문화적 타락을 분석하여 이들을 막아 내었다. 또한 칼빈이 살았던 개혁주의 시대도 새로이 인문주의의 부흥의 시기였으

3) 벤자민 B. 윌필드, 『칼빈 루터 어거스틴』 김정희 역, (서울:기독교문화사 1986. 3.), p. 15

4) *Ibid*

5) Roy W. Battenhouse, 『아우구스티누스 연구핸드북』 한재규 역,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p. 13

며 교권과 정치권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속되는 긴장 속에서 건전한 신학과 신앙이 사라지거나 힘을 잃고, 교회가 그 권위를 잃어버리는 순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수호하고 보전한 인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며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들을 거치지 않고 교회의 개혁과 하나님의 진리의 수호는 생각하기 불가능 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B. 은총론의 이해와 중요성

우선 은총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은혜와 은총은 영어(grace)로나 희랍어(χάρις)로나 같은 단어이다. 구지 포함시킨다면 우리가 지역 교회에서 흔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은혜(恩惠)”라는 말 안에도 은총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은혜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오용된 잘못된 사용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 “은혜 많이 끼쳐주기 바랍니다.” 등등 그러므로 학문적으로 은총이라는 구별된 단어를 쓰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면에서 보면, 그 의미는 통속적으로 희랍어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는 신약성서 안에서 자나나고 있는데, 주로 “호의(받을 자격이 없는 대도 불구하고 받는 친절)” 라는 의미가 지배적이다. 호의를 의미하는 이 단어에 더 깊은 기독교적인 의미가 부가되었다. 바울

서신 가운데서 은혜는 특별히 예수의 성육신,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자비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었다. 이러한 은혜로부터 용서의 축복, 하나님과의 화평, 구원, 하나님에게 복종할 힘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한 은사(재능)가 주어진다.⁶⁾

많은 종교와 철학에 있어서 인간은 어떤 본성을 가진 존재인가는 끊임없는 질문이 되어 왔다. 특히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와 해결, 그리고 궁극적인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종교는 인간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과 답을 제시해 오고 있다. 이러한 물음과 답변 속에서 인간은 때로는 금욕적인 수행을 통해, 때로는 높은 도덕적인 성취를 통해 자기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이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공통된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인간 이해와 구원관은 무엇인가? 계시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인간 본성에 있어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되어 그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과 스스로 죄에 빠짐으로 그 형상을 훼손하고 비참함에 처한 인간의 모습이 그것이다. 후자가 기독교적 현재의 인간 실존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인간에게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기독교 신학은 죄의 극복과 구원의 출발점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고 명시한다. 그것은 창조와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은총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은총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인간은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본성을 회복하고 새로

6) [기독교 대백과 사전], 기독교문사.

운 의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비로소 책임 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은총은 2천 년 기독교 신학에 면면히 흘러 내려오는 중심주제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정경 형성 이후에 최초로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고대교회의 신학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많은 교리 논쟁에서 교회의 신앙 교리를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별히 그의 은총론은 당시 교회 뿐 아니라, 중세를 지나 종교개혁에 이르면서 재확인 되어 왔다. 더욱이 20세기에 들어 와서 다시금 은총이 바르트에 의해 논의되면서 그의 은총신학은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 되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어거스틴의 은총론이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었으며, 당시의 어떤 도전 속에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 이후의 전개과정은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이성과 합리가 우선시 되는 현대의 사조 속에서 신앙의 우위를 강조하는 은총의 자리매김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C. 은총론 연구의 목적과 범위

칼빈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그대로 전수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 이기는 하나, 일단 본인은 그 사실을 그들의 글에서 직접 찾아보고 다시 집어 보는데 이 논문의 1차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더 나아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대적인 상황과 칼빈의 시대적

인 상황이 달랐으므로 칼빈이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좀 더 강조한 면과 빠트린 것 혹은 약화시킨 개념들을 살핌으로서 그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짚어보려고 한다.

이는 오늘 날 한국교회의 복잡 다양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의 은총개념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방편이다. 역시 또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의미와 바라보는 관점이 각각 시대의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전개되고 강조되는 가를 생각해보려고 한다.

본인은 제한 된 시간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그들의 은총에 대한 생각을 정리 하려고 한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에는 펠라기우스의 논쟁 가운데 나타난 그의 은총의 진술들을 보아야 그의 충분한 진술들을 연구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록 한 권만으로도 그의 사상의 기본적인 구조나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본다. 이 두 인물의 은총론에 대한 사상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들이 밝히려는 그 본 사상이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이들의 강조점과 그 바라보는 관점의 미묘한 상이함을 통하여 그들의 처한 여건이 반영되었음을 밝히려려고 한다.

Ⅱ.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

A. 악의 원인

1. 아우구스티누스가 본 마니교의 악의 개념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의 문제에 대하여 그 어떤 문제들보다도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악의 문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와 지고선의 속성에 결정적인 모순이 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한 것으로 보인다.

악의 기원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먼저 마니교의 악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니교의 악의 개념과 반대되거나 그 모순을 해결하는 면에서 그의 악의 개념을 논술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먼저 그가 모순이라고 한 그 마니교의 악의 개념을 먼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네브리디우스의 마니교에 대한 질문을 인용하면서 마니교의 악에 대한 개념을 극단적으로 제시하였다.

마니교도들이 당신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세력이라고 말한 저 알지 못하는 어둠의 왕국이 당신을 향하여 싸움을 걸 때 만일 당신이 그 싸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세력이 당신을 대항하여 감히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네브리디우스의 질문에는 그 당신이라고 하는 신의 존재가 악의 존재에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또 완전히 다른 하나의 대등한 객체로서 악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니교에서는 악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신보다는 열등하여서 절대 신에게 침해를 가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는 가증스런 짓이라고 일축해 버린다. 여기에서 마니교의 논리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마니교에서 말하는 신과 악의 개념은 신과 대등한 정도의 악의 존재가 있고 또 이 악의 존재는 그 신에게 어느 정도 유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기독교의 악의 개념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아우구스티누스의 악의 실체와 악의 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이 근심하였다. 결국 악의 실체에 대하여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⁸⁾ 즉 모든 존재하는 실체는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악의 실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이다. 즉 하나님의 창조설을 믿는 한 악의 존재나 실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7)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선한용 역, (대한기독교서회: 1990. 2.) p. 198

8) *Ibid* p. 217

“당신에게는 악이 정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한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악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악의 실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단지가 세상에선 선만이 있고 그 선의 결핍이나 최고의 선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그냥 나빠진 상태만이 있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선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라고 그는 보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선의 결핍 최고선에 이르지 못한 상태는 누구에 의하여 생기는 것인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악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악의 실체가 악의 원인이 아니고 또 그 악의 실체를 만든 창조주도 그 악의 원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⁹⁾ 즉 악은 실체가 아니며 단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벌이며,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무질서와 선의 결핍이 고난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것이다. 따라서 조금 덜 선하다고 하여서 그것이 악이 아니라는 것이다. 덜 선할 뿐이지 그 안에는 여전히 선이 남아 있고 그 안에는 선만이 있고 악이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악의 실체는 있을 수 없다. 단지 우리의 죄의 원인과 그것으로 인한 벌의 결과인 고난이 있을 뿐이다. 또한 이러한 죄의 원인은 인간이 스스로 지고선인 하나님을 택하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교만과 욕심 같은 것으로 인하여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간 때문이다. 결국 죄의 원인은 인간의 자유의지이며 그 결과는 인간

9) *Ibid* p. 200

스스로의 책임으로 나타난다. 죄의 원인의 주체가 곧 악의 원인의 주체가 되고 그 주체의 당사자는 의지를 가진 인간 자신이라고 결론이 내려진다.

이리하여 ‘사악이란 무엇인가?’를 추구한 결과 내가 알게 된 것은 사악이란 어떤 실체가 아니고 인간 의지의 왜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지의 왜곡이라 함은 그 의지가 최고 실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 안에 깊이 놓여 있는 보배를 버리고 낮은 부분으로 떨어져 밖으로 잔뜩 부풀어 있음을 말합니다.¹⁰⁾

B. 선물로서의 은총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은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보다 분명하게 들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인의 이 논문은 고백록 (Confession)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그의 은총론의 핵심을 찾아보기도 하였다. 단지 이해의 참조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다른 아우구스티누스어 글과 관련 자료를 인용하도록 하겠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간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가지의 방법만이 있다고 말한다.¹¹⁾ 먼저 그가 마니교와 플라톤주의자들에게는 없는 것 즉 그들의 지혜의 한계를

10) *Ibid* pp. 220-221

11) *Ibid* p. 223

설명함으로서 그리스도의 은총론의 의미를 더 부각 시키고 있다. 따라서 먼저 아우구스티누스가 본 이 두 세상적인 인간의 방법들과 한계를 짚어 보겠다.

마니교에서는 말하는 논리는, 인간의 마음에 두 가지 의지가 싸운다고 현상을 미루어 보아서 그 하나의 의지가 악의 본성이라고 하여 또 다른 나머지의 의지는 선의 본성(원리)라고 보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논리의 오류입니다.¹²⁾ 즉 동일한 악의 의지들이 서로 싸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 예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두 의지가 싸우고 대립하고 있다고 하여 둘 다 모두 선한 의지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줌으로서(여러 가지 예로서)¹³⁾ 그는 마니교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인간의 마음속에 선의 본성(원리)라는 것이 당연히 있다(즉 자유의지에 의한 선의 추구)고 전제하는 그들의 생각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한 의지나 악한 의지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과 인간 내면에 선의 본성(원리)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니교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반박은 인간 내면에는 더 이상의 선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다는 말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는 다음에 전개될 인간의 행위의 한계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의 모든 감각과 기억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과도 잘 연결이 된다.

12) *Ibid* p. 258

13) *Ibid* p. 259

1. 플라톤 주의자들에서 배우지 못한 것

나는 그 때 플라톤주의 자들의 책을 읽고 비물질적인 진리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나는 보이지 않는 당신의 진리를 창조된 물건들을 통하여 알게 됨을 깨달았습니다.¹⁴⁾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무한한 존재자이기 때문에 유한이든 무한이든 공간에 펼쳐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또 항상 같은 분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변질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만물이 당신에게서 왔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 등을 플라톤 주의자들에서 배웠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배우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오직 성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의 책인 플라톤 주의자들의 책에서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인간의 지식이 하나의 지식을 통달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길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¹⁵⁾.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총으로 당신의 길을 찾지 않았다면 이러한 지식들은 오히려 멸망의 길이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인간을 사망의 몸에서 구해 줄 수 있는 것은 당시 최고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 주의자들의 책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린다.

14 *Ibid* p. 225

15 *Ibid* p. 226

2. 인간의 행위의 한계

어쩌면 여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에 대한 절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면서 그녀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기를 기원하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하나님에게 그녀의 수많은 선행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세우기 보다는 그녀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간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인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인간 자신의 그 무엇을 내세워야하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단지 하나님의 그 무엇을 갈구 하고 간구하는 자세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의 은총론의 핵심이라고 여겨진다.

아무리 칭찬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자비 없이 심판하신다면 화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감히 당신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헤아린다면 당신이 주신 선물을 헤아리는 것 밖에 안 됩니다....¹⁶⁾

이것은 인간 안에 인간의 구원의 문제나 그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요 인간 밖에 그 해결의 열쇠가 있

16 *Ibid* p. 301

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그의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인간 밖의 그 무엇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서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인간이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위의 본문에서와 같이 그 선물 즉 은사를 헤아리는 것이다. 즉 감사하고 찬양하며 즐기는 것뿐이다. 또 그 은혜의 존재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신 다음에 또 하나의 인간 행동의 긍정적인 여지는 인간이 이를 간구하는 것¹⁷⁾ 정도로 말하고 있다.

3. 인간의 감각과 기억의 한계(비참한 인간의 실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진리이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발견해 나가는 능력을 여러 개의 단계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한 모든 수단들이 결국은 하나님이¹⁸⁾ 인간에게 선물로서 주시고 허락하신 가운데서 만이 가능하다고 단정하면서 그러한 인지의 능력 또한 한계를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간의 인지 능력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그 분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¹⁹⁾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감각을 이야기 합니다. 그는 신체의 오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알 수 있고 인간의

17 *Ibid* p. 302

18 *Ibid* p. 343

19 *Ibid* p. 344

영혼도 그 감각이라고 하는 특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영혼의 주체의 내면에 진리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진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영혼의 내면에 넣어 주신 것 혹은 허락해 주신 것 혹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 안에서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글들에서 좀 더 다루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감각보다도 더 인간의 인지를 좌우하는 것이 기억이라고 그는 본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내면의 공간은 바로 이 기억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억 속에 계시기로 택하였다고 까지 표현하고 있다. 바로 이 더 위대하고 고차원적인 이 기억조차도 하나님이 인간의 그 기억 속에 계시기로 택하신 인간의 기억 속에만 있게 되므로 이 또한 인간의 스스로의 인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자주 감각보다도 더 위대한 이 기억마저도 초월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²⁰⁾

나는 내 기억의 깊은 방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기서 그것들 중 어느 것도 당신자체는 아니면서 당신의 도움 없이는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식별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²¹⁾

20 *Ibid* p. 333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는 것조차도 스스로의 능력의 밖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전적타락(全的墮落)이라는 말의 개념을 본인은 여기에서도 강하게 찾을 수가 있다. 참고적으로 본인은 그의 고백록(Confession)에서 인간 실존의 현실을 철실히 들어내는 말을 찾을 수가 있었다.

나는 내 자신의 비참한 무게에 눌려 평상시의 일에 다시 떨어져 내려와 나의 옛 습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슬피 울어도 나는 여전히 그것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습관의 힘은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기 싫습니다. 달콤한 맛을 맛보는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다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러나 저러나 비참한 존재일 뿐입니다.²²⁾

C. 그리스도만이 은총의 수단이 되는 증거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모든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도로서

21 *Ibid* p. 371

22 *Ibid* p. 372

즉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그는 또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러한 관계형성의 중재자로서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과 교제 할 수 있는 길(하나님을 즐기는 데 알맞은 힘)은 오직 인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당신의 은혜(은총) 밖에 없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길을 찾았다고 말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이 그 때까지 쌓아 놓았던 모든 세상의 지식들이 오히려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또한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지식도(주로 플라톤 주의자들의 책) 이러한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친 경우가 없으며 자신의 상처들을 치유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오직 성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면이 정화되고 상처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감사는 글 전체에 잘 나타나 있다. 본인은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가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그의 기독교론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을 지라도 그의 은총론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1.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그는 이 중보자의 조건을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는 알리피우스²³⁾나 아폴로나리우스²⁴⁾와 같은 이단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완전하지 못한 인간,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한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위대한 지혜를 소유한 하나의 인간으로 본적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인물로만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회심한 후 그는 중보자로서의 요건을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²⁵⁾ 만일 인간에게 가깝다면 하나님과 너무 멀고 또 하나님과 가깝다면 인간과 너무 먼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에 반하여 거짓 중보자 사탄은 보이지 않는 육체 혹은 당장은 죽지 않는 육체라고 해서 불멸의 하나님처럼 보이여하나 사실은 죄의 값으로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한다.

23 알리피우스 : 아우구스티누스의 설명에 의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육신과 어떻게 결합하여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과 육신 외에는 어떤 영혼도 없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들이 그리스도에게는 인간의 정신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말한다.

24 아폴로나리우스 : 역자의 주, 인간성은 육체와 영혼과 이성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육체와 혼은 인간이지만 그 정신은 로고스에 의해 대치되었다는 설이다. 즉 예수의 인간성의 중심이 신의 로고스이기 때문에 인간성이 부정된 면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 회의에서 이단으로 교정됨.

25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선한용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0. 2.) p. 373

2. 희생제물 대속적 공로

그는 그리스도가 참된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이유로서 그리스도의 수난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수난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으며 그 의로움의 값이 바로 생명이요 평화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로서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들의 죽음을 친히 담당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죄인들의 죽음을 없이해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승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며 동시에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한다. 결국 그의 수난이 중재자로서의 또 하나의 요건이 된다고 본다.

Ⅲ. 칼빈의 은총론

A. 칼빈의 이신칭의(以信稱義)에 나타는 은총사상

1. 믿음에 대한 정의

칼빈은 이신칭의(以信稱義)를 논하기 전에 먼저 믿음에 대한 정의와 칭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고 있다. 특히 그는 11장 이신칭의(以信稱義) 장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미리 2장에서 언급하였음을 명시하고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믿음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겠다.

내가 느낀 결론부터 말한다면 칼빈의 믿음은 결코 샤머니즘에서와 같은 자기최면이 아니다. 또한 어떤 처세술가의 강연회에서나 나오는 긍정적 사고방식으로의 사고의 전환도 아니다. 사이버 이단에서 요구하는 맹신

도 아니다. 특히 그는 로마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믿음이 맹신이라는 교리라면 비난을 하고 있다.²⁶⁾ 칼빈은 믿음이란 무지가 아니며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고 있다.²⁷⁾ 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 지식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감정을 위임함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인간의 신념정도로 생각하거나 좀더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조차도 믿음을 복음서의 내용들을 사실로 믿고 찬성한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믿음을 결코 이러한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다. 즉 전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맹신에 가까웠으며 완전히 깨닫지를 못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이해하는 점에서는 거의 전전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믿음이 있다고 증거 하였다.²⁸⁾ 숨은 믿음의 씨가 죽은 듯이 있다가 부활을 목도하던 시기에 새로운 힘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칼빈은 예비적인 믿음으로서 우선은 맹신을 인정하고 있다. 어찌며 모든 믿음의 시작일지도 모를 것이다.

분명하게 말해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 그 말씀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

2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김종흡, 외 3명 공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III. ii. 3.

27 *Ibid.* III. ii. 2.

28 *Ibid.* III. ii. 4.

나님의 약속에서 믿음이 생긴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학자들과 같은 지식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자들이 성경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선물이다. 즉 하나님과의 화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칼빈은 이 믿음도 하나의 은사로 보며 그 속에 사랑이 내포되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²⁹⁾

또 칼빈은 믿음에는 그릇된 믿음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그렇게 지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물론 질적으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과는 다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혹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음을 언급한다.

결국 믿음이란 화평의 확신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받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평화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사람이 잠시 하나님을 잊고 자기를 잠시 잊고 망각할 수는 있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생각나고 양심의 고통에 불안과 초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인자하시며 호의를 가지신 아버지시며 그분의 관용을 근서로 삼아 모든 일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자요 믿음이 있는 자이다. 이것이

29 *Ibid.* III. ii. 9

믿음의 확실성이다.³⁰⁾

2. 칭의의 정의

그의 기독교강요 11장에서 칭의(稱義)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그의 이신칭의(以信稱義)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 특별히 그는 그의 칭의(稱義)라는 개념이 철저히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며 또한 실제로 물리적으로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납으로서 칭의(稱義)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이 칭의(稱義)의 개념을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稱義)를 간단해 설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 또 칭의(稱義)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轉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³¹⁾

그는 이 전가(轉嫁)의 의미를 성경의 여러 곳을 예로 들면서 확증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납으로서의 용서이며 또한 선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30 *Ibid.* III. ii. 15.

31 *Ibid.* III. ?. 2.

생각의 여지들을 몇 가지로 예를 들면 더 분명하게 들어날 것이다. 즉 칼빈은 다시의 이단인 오시안더의 본질적인 의의 주입을 설명하면서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러한 오시안더의 생각은 오늘날 현대의 교회 안에서도 일부 교인들에게는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오시안더의 본질적인 의를 좀더 알아보자

오시안더의 본질적인 의 사상은 우리가 칭의(稱義)를 말할 때 그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하나님 쪽에서 만의 용납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실질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부분적일지라도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주입된다고 보는 것이다. 심지어 칼빈이 말하는 오시안더는 이러하다. ‘즉 우리는 중보자의 은혜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며, 중보자 안에서 의가 단순히 또는 완전히 제공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와 본질적으로 결합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³²⁾ 그렇다, 오시안더의 이러한 의의 개념은 우리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생각들이다. 즉 인간들이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하여주며 용납하여주는 그 본체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믿는 행위에 의하여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죄 혹은 의로워짐을 사모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금 변화된 행동들과 조금 의로워 지는 듯한 마음가짐을 사모하는 것이다. 칼빈은 의로움을 받는다는 말을 법적인 용어로 받아들이지만 오시안더는 이것을 비웃는다.³³⁾ 또 오시안더는 변화 없는 여전히 악한 자

32 *Ibid.* III. 7. 5.

여기에 지적된 점들은 오시안더의 *Confession* (A 4b;G 1a)에 논술했었다.

들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웃는 것이다.

여기에서 칼빈의 칭의(稱義)는 더 분명하여 진다. 결국 칼빈의 칭의(稱義)는 실제로 본질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순히 법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의 내면에 의가 있는 것이 아니며 밖에 있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께 있는 그 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며 인간 자신만은 결코 의롭지 않으나 그리스도의 의가 이 인간에게 전가 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려진다. 칼빈의 칭의(稱義), 곧 그리스도의 칭의(稱義)에 의한 의로워짐은 인간의 내면에서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오직 우리가 의를 소유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기 때문이다.³⁴⁾

이 칭의(稱義)의 정의에 나타난 칼빈의 은총사상을 살펴보자. 그는 인간이 비록 믿음을 통하여서든 무엇을 통하여서든지 간에 어떠한 경우로라도 인간이 홀로 스스로 자기의 내면에 의를 소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예수님에 대한 의존성을 더 강화하는 경우가 된다. 인간이 칭의(稱義)를 얻은 후에도 스스로 그 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함으로써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죄인의 모습으로서 단지 용납되어지는 은혜 아래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33 *Ibid.* III. ?. 11

34 *Ibid.* III. ?. 23.

3. 철저하게 믿음만을 강조하는 이신칭의 속에서 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

칼빈은 오시안더를 정죄하면서 칭의(稱義)의 오해를 씻어내고 칭의(稱義)의 의미를 용납과 전가라는 단어로 정리하였다. 그는 또한 스콜라 철학과 로마카톨릭의 공로 사상과 인간 선행의 무용성을 철저하게 전개하였다. 구원에 대한 선한 행위의 여지를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하나님 기준의 의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말했다³⁵⁾ 또 행위로 세운 의는 완전한 양심의 평안과 기도의 기쁨도 줄 수 없음을 말하였다.³⁶⁾ 심지어 철학자들의 4가지 원인자³⁷⁾를 이야기하면서 행위는 절대로 거룩과 의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물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개입의 여지가 없으며, 다른 어떤 것도-아주 미세한 작은 부분이라도-그 구원에 도움이 되는 기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것이

35 *Ibid.* III. ? 1.

36 *Ibid.* III. x iii. 5.

37 동력인(하나님 아버지), 질료인(예수 그리스도), 형상인(믿음), 목적인(하나님의 영광) *Ibid.* III. x iv. 17.

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그 행위란 무엇이란 말인가? 구원이나 칭의(稱義)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칼빈에게 있어서 그는 행위에 대하여 기독교 강요의 앞부분에서 성화를 이야기 하면서 다른 적이 있다. 구원의 문제나 칭의(稱義)의 문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결국 행위는 구원의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 된다. 일단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점에 대하여 조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칭의(稱義)의 면에서 행위의 위치를 조금 언급하고 있다는 말이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위는 칭의(稱義)과 구원의 결과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는 증거물로서 나타날 때에 믿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³⁸⁾ 즉 매우 특수하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행위가 우리의 믿음에 기여하는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언급이 행위의 공로가 구원에 대한 보조수단이 된다는 의미로 하난 말은 절대 아니다. 믿음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증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것이 믿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그 표증, 즉 그 행위 자체가 그 원인자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은혜스러운 외적인 표현일 뿐인 것이다. 즉 믿음을 강화 시키는 행위자체가 이미 구원 얻고 칭의(稱義)를 받은 자의 표식이요 증거일 뿐인 것이다. 즉 행위는 구원을 이루는데 여전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38 *Ibid.* III. x iv. 18.

보조적인 역할도 하지 못한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로운 표증일 뿐인 것이다. 이미 얻은 구원의 확신을 더 풍성하게 하는 구원과는 직접관계 없는 다른 차원의 것일 뿐이다.

4. 이신칭의를 공격하는 주장에 대한 변론

첫째 : 공로의 의미가 없으므로 보상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서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불경건하여질 것이라고 주장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을 인간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한다.³⁹⁾ 이런 생각자체가 무익한 것이라고 일축한다. 하나님은 값없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선행을 원하신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보상을 바라는 행위를 강조하는 분이라고 경우에는 그 보상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체가 무의미하여 질 것이다. 오히려 도덕과 경건을 강조하려고 사람들을 자극하려면 우리가 구속과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⁴⁰⁾ 즉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이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도 사악한 배은망덕임을 나타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성경에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 모든 선한 일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칭고하는 곳에는 그들의 공로를 말한 경우는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사도들이 가장 강력한 칭고나

39 *Ibid.* III. xvi. 2

40 *Ibid.*

자극을 줄 때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임을 강조하는데 있다.

둘째 : 값없이 의로워 진다는 주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선동한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오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편에서는 값없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장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많은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를 제외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킬 만한 대속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배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피를 흘리시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너무도 추악해서 이 가장 순결한 피의 샘이 아니면 깨끗해진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죄를 무서워하는 생각을 더 많이 일으킬 것이 아닌가?⁴¹⁾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순결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값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B. 악의 실체에 대하여

41 *Ibid.* III. x iv. 4.

기독교 강요에서는 목차에서부터 악의 문제에 대하여 따로 주제를 삼아 심도 있게 거론을 하고 있지 않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조화와 악의 소치는 그의 죄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즉 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악은 실체가 아니며 그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 그 심판의 벌로서 고난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분명하다. 즉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악의 실체에 대한 문제가 칼빈에게 와서는 더 이상 재론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칼빈은 그가 의식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며 그의 사상을 인용한 부분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가 의식하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그도 같은 라틴문화의 사람으로서 그 당시를 오래전부터 압도하고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칼빈이 악의 실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가 암묵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악의 실체에 대한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또 하나는 그가 죄를 정의 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죄의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충과 불순종으로 표현하고 있다.⁴²⁾ 이것은 어떤 악의 실체에서 도래하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고의 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내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보더라도 칼빈은 악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을 암시하여

42 *libd.* II. i. 4.

준다.

1. 악의 실체와 칼빈의 사탄의 의미

잠깐이기는 하지만 물론 칼빈은 성서에서 모든 악의 소행은 사탄의 소행으로 불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⁴³⁾ 즉 성서에 나오는 사탄의 개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아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 인간이 참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함으로서 어찌하든 사탄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사탄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까지 밝히려고 한 악의 실체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생각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악의 실체의 개념은 마니교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즉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의 선에 도전을 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대적된 존재이다. 하지만 칼빈에게서의 사탄은 -그의 율기서의 인용에서 보듯이-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명령 수행자로서 나타나고 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존재나 하나님의 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악의 원인이라고는 절대 보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원인은 인간의 의지에 있다. 악의 뿌리는 이 의지에 박혀있으며 바로 이 의지 위에 사탄의 나라, 곧 죄의 기초가 있다.⁴⁴⁾

43 *Ibid.* II. iv. 1.

44 *Ibid.* II. iv. 1.

2. 악의 원인으로서는 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 없는 악의 실체가 없듯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물이 인간도 원래는 선하였다. 칼빈도 그의 글을 통하여 선천적인 우수성이 우리의 원상태였다고 말하고 있다.⁴⁵⁾ 우리는 비록 지금 타락하였으나 하나님의 첫 작품으로 있을 때에는 상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은 본성이었다고 말하고 있다.⁴⁶⁾ 그는 인간에게 있는 각종 악과 이를 생산하는 능력이 바로 이 인간의 죄에서 기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⁴⁷⁾ 또한 원래 있어야 하는 초자연적 은사들이 완전히 소멸되고⁴⁸⁾ 추구하기는 하나 어떠한 선한 일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가 되는 것 등 이러한 선하지 못한 모든 것이 다 죄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칼빈에게서는 적어도 인간의 모든 악의 소치는 다 죄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함을 결론내릴 수 있다.

3. 예정과 유기의 신비

45 *Ibid.* II. i. 1.

46 *Ibid.* II. i. 10.

47 *Ibid.* II. i. 8.

48 *Ibid.* II. i. 12

칼빈의 예정론을 흔히 이중예정론이라고 한다.

성경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불변하시는 계획에 의하여 영원 전에 구원하시기로 일단 결정하신 자들을 정하셨고 다른 한편 멸망에 넘길 자들을 또한 정하셨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무조건적 자비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가 멸망에 처하게 하신 무리들에게 생명의 문을 폐쇄시킨 것은 그의 의롭고 비탄의 여지 없는 불가사의 한 판단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부름받는다고 하는 것을 피택자의 표시로 보며 칭의(稱義) 역시 택정하심의 다른 표시인 바.... 즉 부름받음, 칭의, 영광이 유기된 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다.

그는 우리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누가 유기의 택정을 받았는지 구원의 택정을 받았는지는 절대 판단 할 수 없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사죄와 칭의(稱義)를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 후 그와 참평안을 즐기며 그의 인도함을 받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신비한 예정을 고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주권과 불가항력적인 은총론을 잘 설명이 되지만 어찌하든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멸망의 비극, 선택지 못한 그것의 창조자가 된다. 이것은 최소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의 실체를 완전히 부정한 것에 비하여 칼빈이 여기에 대하여 아무리 아

니라고 하여도 그 악의 조성의 책임이 현저하게 하나님에게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C. 선물로서의 은총

이 부분만큼은 너무도 분명하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그 어느 부분보다도 강하게 든다. 특히 칼빈은 공로로서가 아니라 자격 없이 선물로서 주는 이 은총의 개념을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음에서 알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서는 (고백록이라는 문학 장르의 성격상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이 부분이 시적이고 극적이며 찬미로서 장식되어져 있어 잘 강조 되고 있지만 칼빈의 기독교강요에서는 그러한 시적인 찬미의 장식이 없이도, 그 딱딱하고 간단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글 전체에 그러한 사상이 잘 내포되고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를 직접인용하면서 한층 더 고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에서 우선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즉,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인간의 의지가 견딜 수 있도록 형성되는 것은 동일한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 기쁨 때문이다. 이 인간의 의지는 불가항력적 힘에 의하여 강화되고 은혜에 의하여 지배될 때 이 인간의 의지는 결코 망할 수 없으나, 은혜가 이를 버리면 그는 멸망한다. 주님의 무조건적 자비에 의하여 인간의 의지는 선으로 전향하였고 일단 이처럼 전향한 다음에 그것은 끝까지 선에 머무른다. 선을 향하는 의지의 방향과 이 선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⁴⁹⁾

1. 인간의 행위의 한계

인간의 어떠한 의지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만한 선을 이룰 수 없고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그러한 구원을 이루는 데 공헌 할 수 없다는 것이 칼빈의 견해이며 이것은 기독교강요 2권 2장에서 노예의지라는 용어와 주제로 잘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2권위 5장 1절에 이러한 인간의 의지가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추호도 공헌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나 노예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의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의지를 자유케 할 때에만 인간은 자유케 된다.⁵⁰⁾

49 *Ibid.* II. iii. 14.

50 *Ibid.* II. ii. 8.

즉 칼빈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능력이 선택자나 비선택자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보편적인 은혜로 말미암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으로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사회적 질서, 시민적 질서, 자연에 대한 관찰, 예술, 학문, 등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⁵¹⁾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인 은혜와 달리 그는 ‘생명이 태초에 하나님 안에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 어두움을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요한복음1:3-5)’을 인용하면서 영적인 일에 대하여는 무지를 넘어 무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의 조명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단정 짓고 있다. 즉 하나님의 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는 그분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추호도 공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⁵²⁾ 계속해서 인간의 의지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며, 이 은혜는 모든 선한 일보다 앞선다고 단정하고 있다.⁵³⁾

2. 인간의 인식의 한계

칼빈에게는 인간이 오성과 더불어 모든 예리한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여도 이루지 못하는 3가지의 영적인 통찰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대한 지식이고 둘째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달려있는

51 *Ibid.* II. ii. 13

52 *Ibid.* II. v. 1

53 *Ibid.* II. iii. 7.

그 하나님의 은총이요 셋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일이다.⁵⁴⁾

그러므로 요한의 선포에 의한,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신자들은 ‘형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요1:13)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조명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기타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이해하는 고상한 지혜에 도달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께서 증거하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한 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의한 것이었다.(마16:17).

D. 그리스도만이 은총의 수단이 되는 증거들

앞에서 보았듯이 칼빈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공헌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인간에게는 단지 노예 의지만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인간인 자기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개입에 의한 구원의 길만이 있음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수많은 성서의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 외부로부터의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간은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54 *Ibid.* II. ii. 18

서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논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전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⁵⁵⁾

앞에서 보았듯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세상적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통달의 지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파멸시키는 길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있다.⁵⁶⁾ 마찬가지로 칼빈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전까지 논의되고 확신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사전 지식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신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선물로서의 은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의 유일한 근거는 구속자의 오심이다."⁵⁷⁾ 이것은 더 강조되어서 우리의 중제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은총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까지 전제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이 하나님의 은총이 온전하여 졌다는 말이 된다.

55 *Ibid.* II. vi. 1.

56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선한용 역, (대한기독교서회 1990. 2.) p. 226

5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김종흡, 외 3명 공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II. vi. 4.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알 수 없을 것이다.⁵⁸⁾

1.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칼빈은 초기부터 기독교에 바론을 제기해왔던 여러 이단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이 평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성을 주장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는 영지주의나 마르시온주의 마니교 등과 같이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러한 저급한 육신적 실존을 말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다. 칼빈에게서의 인성은 저급한 육신적인 실존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로 낳으며 죄가 없는 육체이다.-개인적으로 첫 아담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다.- 아무튼 칼빈 역시 구약의 여러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가 완전한 사람이여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 인자라는 용어를 즐겨 쓴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는 하늘의 씨앗도 아니요 환상적인 인간도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의 씨앗이다.(창12:3;17:2,7;18:18;22:18;26:4) 영원한

58 *Ibid*

중보자를 약속받은 자는 다윗의 아들이요 그의 허리에서 나온 열매다. (시편45:6;132:11) 그래서 그가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을 때 그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 (마1:1)이라 불렸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인간이라고 하는 말로 만족하시지 않고 종종 자신을 인자(人子)라고 부르셨으니 그 뜻은 인간의 씨에서 탄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어 주시되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 본성의 명백한 완전성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로서의 증거나 자격이 되는 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듯하다. 하지만 이 양 본성에 대한 그의 생각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것과 손색없이 동의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인성과 그렇게 긴밀하게 연합되었으나 각각 자기의 본성이 손상을 입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고 이 두 본성이 하나의 그리스도를 이룬다.⁵⁹⁾

이것은 칼빈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 개념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 잘 나타내 주는 표현이라고 하겠다.

2. 희생제물 대속적 공로

아우구스티누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로서의 당위성을 이야기

59 *Ibid.* II. x iv. 1.

하면서 제사장적인 직무와 또한 동시에 그의 희생물로서의 의미를 설명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칼빈도 그의 기독교강요 2권의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이 옳다고 단언하는 제목을 볼 수 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거저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다 같이 우리의 구원에 작용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모순 되거나 대치되지 않으며 서로 배척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 가지 더 그는 요한1서 1장 7절을 인용하면서⁶⁰⁾ 그리스도의 공로가 은총보다 앞서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족을 택하고 있다.

60 *Ibid.* II. x vii. 1, 4

IV. 두 은총론의 비교

A. 계승 혹은 수용의 측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당시의 가장 영향력이 있던 펠라기우스 등의 이단적인 무리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듯이 칼빈 또한 부패한 카톨릭의 공로주의를 강하게 받아 쳐야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비슷한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이 이들의 은총론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하도록 하였다고 본다. 더구나 칼빈의 경우에는 신앙적인 노선에 따라 죽음까지 각오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보다도 더욱 은총 중심의 신학을 펼쳤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주장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들의 사상의 주된 그 관점과 그 깊이는 사실 대동소이하다고 해

야 한다. 단지 몇 가지 세분화된 용어 등을 후대의 기록자인 칼빈이 더 잘 다루고 있는 것뿐이다. 뿐만 아니라 그 분량이나 조직성에 비해 볼 때 고백록의 기록들이 많이 미약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내면에 있는 중심적인 사상들은 이미 다 표현이 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특별히 고백록에 나타나는 비학문적인 표현들 즉 그의 감탄과 찬미와 시적인 표현들에 농축되어 들어있는 사상들은 칼빈에게서 와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이나 불가항력적인 은총처럼 보다 더 방대하고 조직적인 표현들로 대치되었다고 보고 싶다.

결론적으로 본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그의 대부분의 사상들이 칼빈에게 전수되어졌으며 보다 더 정리되고 보충되어졌다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바이다. 칼빈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강력한 불가항력적인 은총과 강력한 예정론⁶¹⁾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B. 첨가 및 강화의 측면

1. 영원 전부터의 택정

61 김영도, 『어거스틴, 누구의 편인가?』, 영신논단 창간호 2000. . .

본 글이 실로 방대한 두 거대한 신학자의 모든 면을 다 비교하는 것은 목적과 범위에서 벗어난다. 본인은 단 한가지의 상이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조금 발전시켜 생각해 보려고 한다. 즉 본 논문의 첫 번째 소주제였던 악의 실체와 이것과 관련된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고찰이다.

우선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악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로 그의 이러한 그의 노력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본인도 그의 이러한 신앙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그리하여 그는 최소한 고백록에서는 사탄의 개념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악의 실체를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악의 창조나 출처의 근거가 아님을 보호하고 증명하여 낸다. 그러나 칼빈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다. 그는 악의 출처가 인간의 죄에서부터 오는 것이므로 일단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 같다. 하지만 사탄의 존재를 긍정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주관하시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사탄의 존재가 악의 존재인지 아니면 단순히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선의 결핍의 존재인지 분명한 제시가 없다. 따라서 본인은 보다 분명한 기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즉 하나님의 유기와 멸망 받을 자에 대한 택정에 관한 글이다.⁶²⁾ 결국 아담의 범죄 이전에 각각 개개인의 택정을 했다는 말인데 이는 여러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아도 -칼빈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과 유기 즉 악의 개념이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비이고 논리적으로는 모

62 John Calvin, 김문제 역, 『기독교 강요』, (서울: 세종문화사, 1977), III. xxi. 7.

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은총론의 하나님의 주권의 강조

앞에서 보았듯이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은총은 대부분 내적인 갈등-두 영혼의 갈등-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즉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돕는 은총임을 알 수 있다. 즉 의지를 돕는 은총이며 행위의 측면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그의 은총은 창조 전부터의 예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즉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 편에서의 선물인 것임은 분명하면서 견인적인 은총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칼빈의 은총은 영원 전부터 정해졌으며 그의 주요 표현들이 아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특별은총을 받은 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칼빈의 은총론이 월등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칼빈의 시대적인 상황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상황보다도 더 절대적인 은총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세의 고정되고 퇴학해버린 신학이 더 이상 새로운 시대인 인문주의 세상을 품지 못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강조된 은총론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IV 결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은 은총이 보다 바람직한 관점에서 해석되고 강조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나야 할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알 때 겸손할 수 있으며 모든 이 사회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은총에 젖어 있지 않고서 하는 모든 선행과 교회의 사회 참여는 그저 생색내기에 끝나는 차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 극심해져가는 빈부의 격차와 여러 사회적 혜택의 격차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절대적으로는 풍족하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인간들이 서로 소외되며 불안과 초조와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진리를 소유한 한국의

교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선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은총이 넘쳐나야 하며 그 은총을 통한 사랑과 믿음에 일어나야 하겠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움직임이 있어야 우리 한민족의 전체의 희망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본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은총의 오용의 문제이다. 즉 과도하게 공로를 강조하던 과거 종교개혁의 사회에 정립된 칼빈의 신학이 아직 현재 한국교회에 비슷한 관점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은총을 받지 않은 자들이 스스로 은총은 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 영영히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사모함과 갈구를 상실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문제이다. 즉 이신칭의(以信稱義)라고 하는 믿음의 교리가 선부른 자기 확신의 편견으로 오용되어 구원에 대한 그릇된 확신을 주고 그것이 심리적인 면죄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칼빈이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믿음에 대하여 잘 말해주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즉 그의 말대로 그릇된 믿음과 자기의 확신과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세상의 자식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경건성을 가장지만 참 진리에 대한 무지로 일관하는 이들은 결국 종교성이라고 하는 빈껍데기만을 소유하게 된다. 사실 이들에게는 이 껍데기만의 종교성이 그들이 원래 바라던 것이었을 지도 모른다. 믿음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고도 강단에서는 너무나 도식적인 값싼 천편일률적인 이신칭의(以信稱義)의 교리적인 도식이 선포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감격으로, 전 실존으로 받아야 할 이 은총을 너무도 값싼 구원의 수단이요 종교적 장치가 되어 심리적인 면죄부의 역할을 하는 수단으로 전략해 버

리는 것이다. 이런 통탄할 모습들이 이 한국교회에 수 없이 많음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특별히 나타나는데 즉, 세상의 비 기독교인들과 다름이 없는 힘없이 세파에 끌려가는 생활의 원인이며 오히려 더 이기적인 면모를 보이는 형태의 원인이다.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과 같이 관점에서만이라도 은총을 이해한다면 그 은총은 견인의 단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갈구하고 또 감사와 사랑으로 감격하는 은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과 같은 자신의 낮아짐을 경험하고 헤어날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속에서 오직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아는 것이다. 오직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만이, ‘오직 그 하나님만이’ 라고 하는 믿음을 아는 것이 너무도 절실한 시대인 것이다. 본인은 이 모든 것은 원인도 은총론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또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도 은총론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가르침에서 해결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시 한번 은총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본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 Primary Texts >>>

1.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선한용 역, (대한기독교서회 1990.
2.)
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김종흡, 외 3명 공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3. Brown, Peter, Augustine of Hippo, 차종순 역, 어거스틴 생애와 사상, 서울 :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2

<<< Secondary Texts >>>

P. Tillich,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8), p. 103

벤자민 B. 윌필드, 『칼빈 루터 어거스틴』, 김정희 역, (기독교문화사 1986. 3.),

Roy W. Battenhouse, 『아우구스티누스 연구핸드북』 한재규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

Schaff, Phillip, 『어거스틴의 은총론(I - IV 권)』, 차종순 역, (서울 :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6- 1998)

정성구,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세종문화사, 1980)

Murrey, John,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나용화 역, (예수교문서 선교회, 1979.)

<<<기타자료>>>

『기독교 대백과 사전』, 기독교문사.

김영도, 『어거스틴, 누구의 편인가?』 영신논단 창간호 2000. .

양명길,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의 교리사적 조망』, (학위논문(석사)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91)

윤요한, 『어거스틴의 은총론』, (학위논문(석사)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98)

노영근, 『요한 웨슬레와 칼빈의 은총관 비교』 (학위논문(석사) 서울신학대학교 신

학대학원 , 1982)

우신종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아우구스티누스 은총론』, (학위논문(석사) 장로
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 1985)

연세출판부, 『갈빈서거 400주년기념 논문집』, 1965